

이제 막 수능을 본 수험생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배승일

**# “학생, 법학과보다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더 많은데요?”**

재수를 결심했을 때, 나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고향을 떠나 경기도,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는 것. 그래서 한경국립대학교를 목표로 삼았다. 처음엔 법학과를 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 때 선택한 '정치와 법' 과목이 나와 잘 맞았고 재밌었기 때문이다. 제한된 고등학교 선택과목 속에서, 그나마 나와 맞는 학과가 법학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시 모집 안내를 보니 자율전공학부가 법학과보다 훨씬 더 많이 모집했다.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나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전공을 선택했다. 솔직히 나는 자율전공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학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그날의 선택은 잘한 결정이었다. 만약 법학과에 바로 입학했다면, 나는 고등학교 3년과 재수 1년이라는 한정된 경험만으로 4년의 공부 방향을 정했을 것이다. 물론 법학을 비난하려는건 절대 아니다. 다만, 정해진 교육과정 속에서만 한정된 시야만 가진 채 성인이 된 이후의 학문까지 정하는건 너무 이른 선택이라 생각이 든다.

**# 사회에서도 문과 이과 2가지로 나뉘는 걸까?**

1학기가 시작되고, 자율전공학부 학생이라면 필수로 듣는 '자율전공탐색' 수업을 수강했다. MBTI 검사부터 시작해서 U&I 학습유형검사 같은 적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앉아서 암기형 학문을 공부하는 것보다 “활동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사람들과 협동하며 도출해내는 것”이 적성에 더 잘 맞는 사람이었다.

'법학과가 정말 나와 맞을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5월에 열린 전공박람회에는 나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인문계 출신이었던 나는 법학과 부스뿐만 아니라 토목공학과, 컴퓨터응용수학과, 동물응용생명학과 부스까지 돌아다녔다. '이런 학과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고 이런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 그 순간 문과와 이과의 경계가 무너졌다. 원 전공은 인문계열을 가더라도, 자연계열 학과 공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전공 로드맵 작성 과제를 위해 법학과 선배, 교수님과 면담도 진행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선배는 법학과의 암기형 시험 특성, 개인 과제 중심의 학과 분위기, 인기 있는 모의재판 수업, 경찰·검

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학교에서도 공무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투자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강조하셨다.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분야에 전문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요즘같은 4차 산업혁명과 AI의 시대에서는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 트렌드를 맞추어 갈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는 **융합적 시야**를 길러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융합형 인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 # 재밌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자율전공탐색' 수업에서 브이로그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촬영, 편집, 발표를 모두 직접 해야 하는 과제였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달랐다. 어떤 장면을 담을지 기획하고, 어떤 각도에서 찍을지 고민하고, 편집실에서 컷을 나누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입히는 모든 과정이 설렘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을 새워 편집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이 밀려왔고, 발표 시간에는 내 눈빛이 빛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아, 나는 이걸 4년 동안 해도 행복하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다. 법학 교재를 펼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온몸이 반응하는 느낌이었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었기에 그 중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안에서 나와 맞는 것을 골랐던 것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전공 선택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맞는 방식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인생 첫 교훈이었다.

### # 세상은 넓고 다양하게 배운걸 펼칠 수 있구나

여름방학, 나는 학교의 해외자율연수프로그램에 합격해 자율전공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에 다녀왔다. 함께 간 친구들은 모두 자전이었지만, 희망하는 학과가 달랐다. 나는 법학, 다른 친구들은 각각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학과, 경영학을 지망했다.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터센터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나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AI의 법률을 비교하는 탐구를 진행했다. 다른 친구들은 스페인 관광 콘텐츠를 탐구하고, 피에르 01(Pierre 01)이라는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해 창업가들과 면담했다.

그 순간이 새로웠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나는 법학만 탐구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탐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학문에 대해 한 발짝 다가

간 느낌이 들었다. 전공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 경험은 2학기에 내가 다른 전공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 # 굳이 한가지만 배워야 하나?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깐..

1학기 중반부터 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3월 하순부터 시작한 총학생회 문화기획국 활동이었다. 장애인의 날, 성년의 날, 위시 영화제, 체육대회, 봄 축제, 가을 대동제, 골든벨... 수많은 학교 행사를 준비하고 선배들과 회의하며 나는 점점 깨달았다. 나는 기획하고, 영상물을 제작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구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촬영물과 후기가 올라왔을 때, 내가 만든 결과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의 추억 속에 이바지했다는 생각이 들자 좋았다.

1학기 후반, 나는 고민에 빠졌다.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법학을 지망했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 내년에 적응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총학생회 선배들,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학과(이하 문미콘홍)를 희망하는 다른 자전 친구들, 그들이 소개해준 문미콘홍 선배들과의 만남이 나의 고민을 덜어주었다. 여름방학 동안 나는 결심을 굳혔다. 2학기부터는 문미콘홍을 선호전공으로 바꾸기로...

2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칸 라이언즈 서울'에 참여했다. 실제 기업에서 활동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들으며, 용감한 형제들의 미디어팀장님께서 단순히 미디어만 생각했던 나에게 PR과 광고 크리에이터 분야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꿀 수 있는 분야라는 말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미디어뿐 아니라 홍보도 배울 수 있는 문미콘홍, 내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한가지 호기심이 생겼다. 엄마의 조언으로 관심을 갖게 된 안전공학과였다. 처음엔 전혀 관심 없는 공학 분야였지만, 전공박람회에서 느꼈던 '자연계 쪽에도 전문성을 가진 융합 인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는 안전공학이 미래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분야라고 추천했다.

'전공 한 스펀'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전공학 교수님, 선배님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게도 안전공학은 내가 염려했던 수학, 물리보다 오히려 법학과 연관이 깊은 학문이었다.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법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안전공학 출신 졸업생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안전공학을 복수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복수전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혼란스러웠던 나를 구해준 곳은 새내기성공지원센터였다. "복수전공을 희망하는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무턱대고 찾아갔더니, 교직원 선생님께서 친절히 상담해주셨다. 복수전공은 학위가 나온다는 것, Q-NET에 직접 전화를 걸어 원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이더라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것, 1학기에 듣지 못한 물리와 미적분 같은 전공 필수 교양도 복수전공이면 들을 필요 없다는 것까지 안전공학 학과 조교님께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주셨다. 학교가 자전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경동행'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되었다. 1학기에는 다른 자전 친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미콘홍 정보가 한정적이었는데, 한경동행을 통해 선배와 식사하며 과 분위기, 방송국·출판사 등 다양한 졸업 후 진로를 알게 되었다. 학술제라는 것도 알게 되어 실제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보며 어떤 수업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미콘홍이 산문, 운문, 미디어, 홍보로 트랙이 나뉘어져 있다는 학과 정보도 얻었고, 제주대 자매결연을 통해 작년에 제주대에서 수업을 들었던 선배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국내 대학도 자매결연이 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 # 그래서, 넌 어떤 능력과 자질을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건데?

지금 나는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학과와 안전공학을 복수전공하여 융합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위기·재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재난/안전 전문 기자·PD가 되는 것이 목표다. 안전공학의 전문성과 미디어·홍보의 소통 능력을 결합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 # HK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걸 잘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

1년 전, 나는 '정치와 법' 선택과목 하나로 법학과를 정했다. 그러나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이 1년 동안, 나는 문과와 이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융합 인재가 현재 사회가 원하는 인재라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았다.

만약 내가 자율전공이 아니라 법학과에 바로 입학했다면? 한정적인 학창시절 경험으로 나와 더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을 기회를 영영 놓쳤을 것이다. 자율전공은 나에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프로그램들 - 자율전공탐색 수업, 전공박람회, 해외자율연수, 전공 한 스펀, 한경동행, 새내기성공지원센터의 상담 - 이 모든 것이 내 결정을 도왔다. 처음엔 자율전공이 올해 처음 시행되어

걱정도 많았지만, 교수님과 교직원 분들, 선배님들, 동기들의 도움으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나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걸 부끄러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엔 긴장되고 부끄러웠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만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내년에는 자율전공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다.

내년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을 만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넌 하얀 도화지 같은 존재이니 아직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이어붙일 무궁무진한 세상이 넘쳐나는 사람이니깐.